

“대촌 빈집털이 범인 꼭 잡는다”

남부콜, CCTV 13대 설치·순찰강화

광주 농촌지역인 남구 대촌동 등지에서 빈집털이가 극성하고 있다는 광주일보 보도(10월 5일자 6면, 10월 27일자 7면)와 관련, 경찰이 해당지역을 특별순찰권으로 지정해 상시순찰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 대촌·대지동을 비롯해 인근 마을 진·출입로 등 7곳에 방범용 폐쇄회로(CC) TV 13대가 설치된다.

김진희 광주남부경찰서장은 27일 광주일보 독자 게시판에 올린 ‘농촌 빈집털이 예방 및 절도 검거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란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역주민의 치안 욕구에 부응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주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치안력을 집중하겠다”며 “범죄를 원천 차단 하기 위해 우선 피해지역 주변을 특별순찰구역으로 지정하고 형사 1개팀 5명을 현장에 배치하기로 했으며 방범순찰대를 투입, 이

동과출소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광주남부경찰은 대촌과출소와 최근 개소한 승촌보치안센터 등을 중심으로 파출소와 연계체계를 구축, 농촌지역 빈집털이와 절도예방을 위해 취약시간대 순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이 절도예방 특별대책을 내놓은 광주 남구 대촌지역은 도둑 든 집이 또 털리는가 하면 농자재 등 절도 사건이 잇따르면서 치안 부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곳이다.

급기야 한 주민이 경찰청 홈페이지 ‘청장과의 대화’에 잇단 절도(3년간 다섯 차례) 피해의 대책을 호소하며 조현오 경찰청장에 글을 올렸었다.

김진희 남부경찰서장은 “앞으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대촌동 일대 절도예방활동과 범인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벌써 크리스마스? 광주신세계백화점은 지난 28일 오후 백화점 앞 광장에서 '미리보는 눈꽃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가졌다. 백화점을 찾은 시민들이 미리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기

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세대수 늘어난 동구 사회복지 공무원 ‘녹초’ 예산 줄어든 북구 주민복지·현안사업 ‘빠듯’

광주시 구간경계조정 한달... 문제점은?

도심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시행된 광주시의 구간경계조정이 11월1일로 시행 한 달을 맞았으나 후속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아 각 구별로 사회복지 등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30일 광주시 각 구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시행된 구간경계조정으로 북구 동림동, 운암동 일부가 서구로, 북구 풍향동, 두암3동, 중흥1동, 우산동 일부가 동구로 편입됐다.

또 동구 산수1동, 산수2동 일부가 북구로, 서구 양동 일부가 남구로, 남구 방림2동 일부가 동구로, 남구 송암동 일부가 서구로, 서구 서창동 일부가 광산구로 각각 주소지를 옮겼다. 인구성은 서구의 경우 1만6681명, 동구 5068명, 광산구 234명, 남구 4명이 증가했고, 북구는 2만1987명이 감소했다.

그러나 행정구역 면적과 인구가 늘어난 동구청과 동주민센터 공무원들은 담당 업무량이 함께 늘어 힘겨워하고 있다.

동구 계림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2명은 200세대가 넘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들의 복지를 담당해왔다. 하지만 이번 구간경계조정으로 70여세대를 더 담당하게 됐다.

인구 2만여명이 동구와 서구로 빠져나간 북구는 세입 20여억원이 줄어 주민 복지 및 현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 지역 자치구 가운데 사회복지비용 지출이 가장 많은 북구는 시에 세수 감소분을 보존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파출소 폐지에 따른 담당 구역이 재조정되지 않아 출동지연 등 치안

공백도 우려되고 있다.

북구 풍향동, 중흥1동 일부는 동구 계림동으로 편입됐지만 관할은 동부경찰서가 아닌 북부경찰서가 여전히 담당하고 있다. 또 북구 동림동, 운암1동 일부는 서구 동천동으로 편입됐으나 관할은 여전히 북부경찰서다.

초·중등 학군 조정 문제도 현안이 됐다. 4학교군(운암·양산·중앙중 등)에 속한 기존 동림2지구 주민들은 서구로 편입되면서 3학교군(동명·광주·금호중 등)에 포함됐다.

11월 신입생 배정 이후 동림2지구 주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20분 남게 걸리는 광주중, 금호중 등으로 배정될 처지에 놓였다.

공동학군제인 광주 지역 고등학교는 큰 문제가 없지만, 학교별 신입생이 이뤄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군 조정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김대성·김경민기자 bigkim@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52분 / 해질 17시 40분 / 달돋이 11시 26분 / 달질 21시 42분

맑은 가을 하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대체로 맑겠다.

| 구분 | 기온 |
|-----|-----------|
| 광주 | 맑음 9/22℃ |
| 목포 | 맑음 10/21℃ |
| 여수 | 맑음 14/21℃ |
| 나주 | 맑음 7/23℃ |
| 완도 | 맑음 10/22℃ |
| 구례 | 맑음 7/22℃ |
| 강진 | 맑음 9/22℃ |
| 해남 | 맑음 6/22℃ |
| 장흥 | 맑음 7/23℃ |
| 순천 | 맑음 11/22℃ |
| 영광 | 맑음 7/21℃ |
| 진도 | 맑음 9/22℃ |
| 전주 | 맑음 7/22℃ |
| 군산 | 맑음 8/21℃ |
| 남원 | 맑음 5/22℃ |
| 홍산도 | 맑음 14/17℃ |

지역별 날씨: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목포, 제주, 춘천, 강릉, 울릉도/독도

| 구분 | 종량 | 파고 | 지의선지수 | 식중독지수 | 뇌졸중지수 |
|-----------|------|----------|-------|-------|-------|
| 서해 남부 앞바다 | 북~북동 | 0.5~1.0m | 맑음 | 주의 | 높음 |
| 서해 북부 앞바다 | 북~북동 | 0.5~1.5m | 맑음 | 주의 | 높음 |
| 남해 서부 앞바다 | 북~북동 | 0.5~1.0m | 맑음 | 주의 | 높음 |
| 남해 동부 앞바다 | 북~북동 | 0.5~2.0m | 맑음 | 주의 | 높음 |

◇주간날씨

| 날짜 | 11/1(화) | 2(수) | 3(목) | 4(금) | 5(토) | 6(일) |
|-------|---------|-------|-------|-------|-------|-------|
| 날씨 | ☀ | ☀ | ☀ | ☀ | ☁ | ☁ |
| 최저/최고 | 10/22 | 11/21 | 12/21 | 12/21 | 13/19 | 13/19 |

호남 4·19혁명단체 총연합회 집담회

내달 4일 '호남4·19가 전국 4·19에 미쳤던 영향' 주제

호남4·19혁명단체 총연합(상임대표 김영웅)은 다음달 4일 오후 5시 광주시 동구 계림1동 금수장관관광호텔 2층에서 '호남의향의 배경에서 호남 4·19가 전국 4·19에 미쳤던 영향과 위상'이라는 주제로 집담회를 갖는다.

이날 집담회에서는 조계현 전 국무총리 감사, 정환담 전남대 명예교수, 전대열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기연수 한·러교류협회 회장, 전만길 전 서

울신문사 사장을 비롯해 4·19혁명 주역들과 정신계승에 동참해온 각 단체의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미완의 4·19혁명'과 '세계로 향한 광주 인권도시'의 인프라 확립을 위해 힘을 모으고, 광주학생독립운동과 5·18광주민중항쟁, 호남 4·19의 직간접적인 역사 고리와 필연성을 재정립시켜 광주민주역사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노력할 예정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추락 아시아나기 조종사 시신 발견

제주 해상서 3개월만에

지난 7월28일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추락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의 조종사 시신이 3개월여 만에 발견됐다. 제주해양경찰은 30일 오전 사고기 동체의 조종석 부분을 인양해 내부를 수색한 결과 최상기(52) 기장과 이정웅(43) 부기장 등 2명의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시신은 제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안치됐다.

사고기는 아시아나항공 소속 B747

화물기로, 7월28일 새벽 4시28분께 제주시 서쪽 약 107km 해상에서 화재로 추정되는 사고로 추락했다.

한편 조종사 시신이 3개월여 만에 발견됨에 따라 가입 보험금 지급도 빨라질 전망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 화물기의 조종사 2명 가운데 1명은 상당수의 중신 및 손해보험을 들고 있었는데 그동안 실종 상태임에 따라 보상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사망 시 이 조종사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은 30억 원 정도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SINCE 1982

말 소리가 잘 안들리나요?

국제보청기

www.kjhr.com

난청은 물론 이명까지 -젠 톤-

노인성 난청에 탁월한 보청기

자연스런 소리연출이 가능한 보청기

이명 완화에 효과적인 보청기

본점 062-227-9940 / 서울점 02-765-9940 / 순천점 061-752-9940

충정점 062-227-9970 / 목포점 061-262-9200 / 장흥점 080-222-9975

광주·전남 기능장1호 대산프리모남녀가발

21년 가발 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2011년 신제품 50만원~

귀하의 품위와 인격을 높여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리민기든상가 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검색

최상품을 최저가로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웨딩,객실 상무지구 관광호텔 예술의전당의 대결인 행사”

새롭게 준비한 가을웨딩 총 100가지 뷔페

객실 50이향인 및 조식뷔페(30종) 무료제공

각종연회행사 할인! (돌잔치, 회갑연, 송연모임, 기업행사)

광주 최대의 5000평의 초대형주차장은 오직 호텔예술의전당 뿐입니다!

뷔페식비는 대형예식장에 비해 훨씬 경제적입니다. 가을뷔페는 총100여가지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및 통창치와 즉석김치로 모십니다. 하객 400인 이상 보증시 원목침대 및 협탁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성수기 혼잡한 대형 예식장에 비해 훨씬 여유있는 연회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관광호텔 예술의전당 362-0011, 600-9999